

〈11월 11일, 보행자의 날〉

“사람이 먼저입니다. 걷는 길이 안전해야 합니다.”

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전정보



‘보행자의 날’이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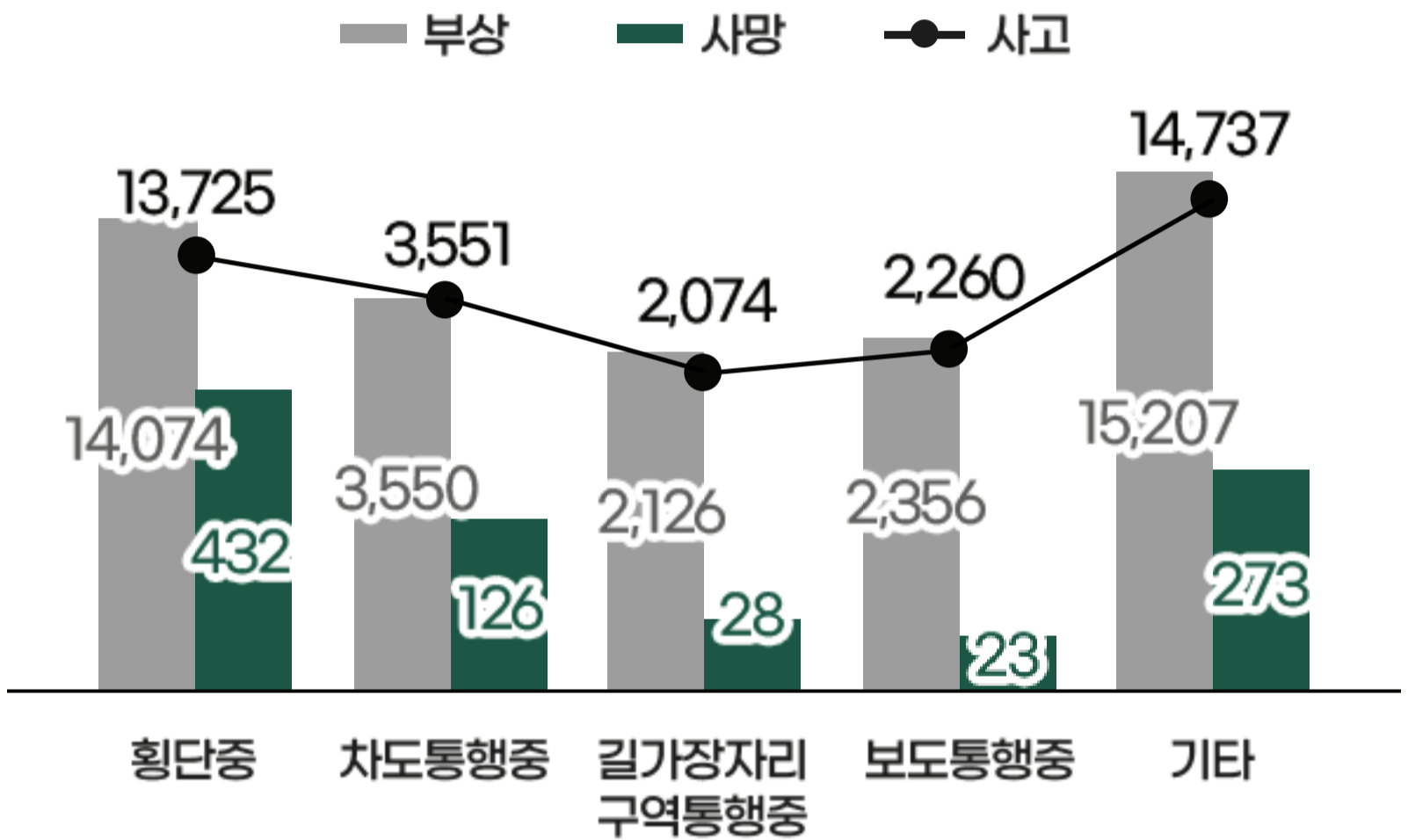
보행자의 날은 11월 11일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,
2010년에 국토교통부가
국민 건강 증진과 보행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

걷기의 중요성과 **보행자의 안전**을 알리고,
모든 교통 이용자가 보행자 보호 수칙을 잘
지킬 수 있도록 국민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
국가기념일로 지정



숫자 11이 ‘사람의 두 다리’를 연상
11월 11일로 지정!

2024년 보행 교통사고 현황



[출처: 한국도로교통공단]

가장 많은 사고 유형: **‘횡단 중’**

사망률이 높은 유형: **‘차도 통행 중(3.5%)’, ‘횡단 중(3.1%)’**

안전한 보행습관이 생명을 지킵니다!

보행자 안전수칙1



①

길을 건널 땐
서고! 보고! 걷고!
방어보행 3원칙 지키기



②

길을 걸을 땐 **반드시 인도**를
이용하고 인도가 없다면
길 가장자리로 통행하기



③

길 걸을 땐
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



④

앞을 보지 않고
장난치지 않기

보행자 안전수칙2



⑤

이어폰 사용 자제하기



⑥

흐린 날이나 어두울 땐
눈에 잘 띄는 **밝은 색 옷 입기**



⑦

무단횡단하지 않기



⑧

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
반드시 인도로 걷기

11월 11일 '보행자의 날'

가을 하늘 아래,
안전하게 걷는 하루 보내세요.

보행자의 날은
걷는 사람' 모두의 날입니다.

함께 걸어요, 안전하게. 건강하게.

